

옥황상제 말잣딸[末女]이 부모 명령 거역^{호시}와 궁녀 시녀(宮女 侍女)를 물밥을 아니 주어, 궁녀 시녀가 주려 죽으니, 상저(上帝)가 명녕^{호시}와 뜰을 인간으로¹⁾ 나가라 ^{호시}니, 머리 가까 송낙 쓰고 장삼(長衫) 입고 백팔염줄(百八念珠) 목에 걸고 인간에 누려와 삼내나목골[三徒里] 청대 [青竹] ?대왓듸²⁾ 좌정(坐定)^{호시}고, 상단골(上丹骨)에 선몽(現夢)들여 불도(佛道)로³⁾ 점지^{호시}다 가 부정(不淨)^호고 부정^호니, 나는 막대동상⁴⁾ 만년(萬年) 폭낭⁵⁾ 알[下]로 좌정(坐定)^{호겠다} ^{호야} 성몽(現夢)^호니, 상단골 중단골 하단골(下丹骨)이 불도(佛道)로 위^{호시}는 한집입니다.

(濟州市 健入洞 男巫 李達春 記錄 巫書에서 맞춤법, 띄어쓰기, 誤字를 고쳐 옮김. ()안의 한자는 저자가 넣음.)

옥황상제 막내딸이 부모의 명령을 거역하고 궁녀, 시녀들에게 물과 밥을 주지 않아 궁녀 시녀가 굶주려 죽습니다. 상제가 명령하여 딸을 인간 세상으로 쫓아내라 하시니, 막내딸은 머리를 깎아 송낙을 쓰고 장삼을 입고 백팔염주를 목에 걸고 인간 세상에 내려와 삼도동 남문골 청대밭에 좌정하시고, 상단골에 현몽을 주어 불도신으로 모셔지다가, 이곳은 부정이 많으므로 나는 막대동산 만년 팽나무 아래로 좌정하겠다 하여 현몽하니, 상단골 중단골 하단골이 막대동산에 모셔 불도로 위하는 신입니다.

현용준·현승환, 『제주도 무가』,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96, pp.306-307.

1) 인간으로 : 인간 세상으로의 뜻.

2) ?대왓듸 : 갈대밭에.

3) 불도(佛道)로 : 산육신(產育神)으로.

4) 막대동상 : 삼도1동의 지명.

5) 폭낭 : 팽나무.